



분양시장 훈풍 도나

8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2년 2개월만 '최고' ...분양물량 지수도 상승 전남 108.3→112.5로 4.2포인트 상승...광주는 4.2 하락에도 115.8

얼어붙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이제 회복세로 돌아설까.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준선(100)을 밑돌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분양물량 지수도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100선을 웃돌았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 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3.3포인트 오른 100.8을 기록했다.

전국 전망치가 100선을 웃도는 것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고금리 등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이던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둬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가 더 많고 100 아래면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8.6포인트 상승한 111.3을 기록했고, 지방광역시시는 7.9포인트 오른 101.6을 나타냈다.

최근 집값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은 2.7포인트 오른 118.9를 기록하면서 올해 1월 최저치(43.9)를 보인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전남은 같은 기간 108.3에서 112.5로 4.2포인트 올랐다. 이밖에 부산 29.8포인트(78.9→108.7), 세종 23.1포인트(76.9→100.0), 강원 19.4포인트(88.9→108.3), 인천 14.9포인트(92.0→106.9), 경기 8.1포인트(100.0→108.1), 울산 7.7포인트(92.3→100.0), 경남 4.2포인트(108.3→112.5), 경북 1.8포인트(92.9→94.7) 등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지수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광주는 전월 120.0에서 이달 115.8로 4.2% 하락, 대전도 114.3에서 105.3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기준치인 100선을 웃돌면서 분양 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가 100선 아래로 추락한 곳은 충남(107.7→81.3), 충북(100.0→92.3), 제주(80.0→68.4) 등 일부에 불과했다.

이처럼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이유로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금융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사 시점마다 전망치의 등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별 분양사업 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분양 전망지수와 함께 이달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지수 역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분양물량 지수는 전월 대비 9.3포인트 오른 104.5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7.1포인트 하락한 110.6으로 나타났지만, 4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주산연 측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그간 미뤄왔던 분양 계획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멘트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 등 연이은 건설 원가 상승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으로 분양가 전망은 당분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청년 주거비 부담 해소”...광주은행 ‘모바일 전세대출’ 출시

연 최저 4.3%...최대 2억2200만원 2년 동안 0.6%p 금리우대쿠폰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뱅크 전용 ‘KJB 모바일 전세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급여(사업)소득자 또는 무소득 청년(만34세 이하)이라면 광주은행 스마트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한도와 금리 조치가 가능하다.

‘KJB 모바일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고객은 최대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고객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3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대출금리는 연 최저 4.3%(8월3일 기준·금리우대쿠폰 적용)가 적용된다.

광주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금리우대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리우대쿠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0.6%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는 판매한도 100억원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박문수 광주은행 상품개발실장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간편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자리 연계 지원주택’ 통합...청년 근로자 누구나 입주 가능

4일부터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 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연계형 지원주택 4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

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의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상관 없이 누구

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30% 돌려받으세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까지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명절 등에만 진행됐으나 올해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 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전통시장에 있는 행사 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행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지자체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돌풍 ... 국내 누적 판매량 900만대 돌파

31일까지 최대 60만원 캐시백

삼성전자는 자사의 무풍에어컨이 국내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900만대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무풍에어컨 출시 이후 7년 넘게 매일 약 3300대가 판매된 셈이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직바람 없는 무풍바람으로 에어컨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던 무풍에어컨은 매년 기술과 성능이 진화했다.

2023년에는 창문형 에어컨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우핏’, 신개념 홈멀티 제품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까지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고, 에너지 고효율 모델의 판매도 증가했다.

특히 올해 가정용 무풍에어컨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모델 제품의 판매비중은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31일까지 삼성스토어와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매장에서 무풍에어컨 국내 누적 판매 900만대 돌파를 기념, 2023년형 무풍에어컨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백화점, 양판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2023년형 무풍에어컨 갤러리 모델 구매시 최대 60만원 상당

의 캐시백 또는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 | | |
|----------------|----------------------------|--------------|-----------------------|
| 자산규모 1조4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대표번호 1644-7990